

‘못생긴 톱모델’ 김동수 씨가 말하는 ‘미인론’

“못났어도 당당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세상 모든 못난이들의 멋내기를 위하여〉 펴내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각이 진 얼굴에 키는 장대같이 큰 못생긴 여자”라고 자신있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중견모델 김동수 씨(37)가 자신의 경험을 재미있고 진솔하게 담은 책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못난이들의 ‘멋내기’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은 〈못생긴 톱모델 김동수의 차밍스쿨〉.

‘돈 안 들이고 멋내기’, ‘정말 좋은 우리식 화장품’ 등 실질적인 미용정보를 담으면서도 잘못된 미의식의 문제를 다뤄 여성의 생활문화비판의 깊이 있는 부분까지 다가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랜 외국에서의 모델 활동,

다양한 여행경험 등으로도 애기 거리가 많아 처음엔 쉽게 생각했다는 그는 “막상 시작하니 내 지식이 별게 아니었구나”라고 느껴 이 책을 만들기까지 꼬박 10여개월을 책과 자료를 보고 공부하며 지냈다고 한다. 그후 고대복식사, 풍속의 역사, 한국의 여속사 등 국내외의 관련서적 20여권을 공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진지한 공을 들였지만 책은 그의 경험을, 유머감각이 풍부한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편하게 쓰여졌다.

지난 78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대학을 다니다 우연한 기회에 모델 컨테스트에 입상해 국제무대에 서게 된 그는 “동양적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이태리,

파리, 미국 등지에서 각광받는 일류급모델로 활동해왔다. 그런 그가 85년 귀국했을 때 한국모델계는 ‘가치관의 혼란’에 빠졌다. 모델로서의 그의 테크닉에 감탄하면서도 “모델은 인형처럼 예쁘고 날씬한 법인데 저렇게 못생긴 여자가 모델이라니”하는 반응이 그것이다. 이때 ‘공주과’가 대부분이던 한국의 모델계에는 그의 귀국으로 새로운 분야인 ‘ET과’가 신설됐다.

그가 한국에 와서 느낀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여성문제’였다고 한다.

왜 고학력자 여성 중 편안하게만 이기적으로 살려는 사람이 많은지, 왜 결혼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의 엄마’로만 호칭되는지, 왜 주부들은 자신감없이 까닭없이 남편에게 주눅들어 사는지, 그리고 ‘외제는 똥도 좋다’며 맹목적으로 선호하는지 등등 의문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특히 무조건적인 서구취향으로만 흐르는 경향은 우리의 고유한 인간성이



◆돈 안 들이고 멋내기를 알려 주는 김동수 씨.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즐기는 색채를 보면 단조롭고 어두워 마치 80년대 초기의 어두운 사회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아 숨이 꼭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색채사용이 눈에 띄게 다양해져 외형적으로는 보다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아직 의식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지적하는 의식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든 돈으로만 연결하려는 경향”이라고 한다. 성형수술을 해야 하고 비싼 옷을 걸치고 외제화장품을 써야 아름다워지는 거라는 생각은 ‘그래서 이빠지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상식처럼 갖게 한다.

김동수 씨가 강조하는 미의

기준은 간단하다. 그리고 경제적이다. 어차피 잘난 사람도 못난 구석이 있고 못난 사람도 잘난 구석이 있게 마련인 바에야 못난 부분도 자신있게 드러내자는 것이다. “못났지만 당당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것은 지키되, 서구 것은 올바르게 받아들이자”라는 게 김 씨의 지론이다.

한국적 생활에 익숙하고 ‘자기 부인이 제일 멋진 여자’라고 생각하는 불란서계 미국인 남편 놀코키아 씨와의 사이에 두돌 된 아들을 두고 일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김 씨는 모델활동 외에도 방송출연, 집필 등으로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지만 엄마가 땀땀하게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자연스런 교육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